

# 한국근대정치사의 전개와 民主主義

—「集團」과 「平等」의 強調와 「個人」과 「自由」의 沈滯—

李 洪 九  
(서울대학교)

## 〈目 次〉

- |                         |                                      |
|-------------------------|--------------------------------------|
| I. 머리말                  | 高調                                   |
| II. 開化期の 改革試圖와 國家主義의 擡頭 | IV. 南北分斷과 民主主義의 시련 : 左右分布없는 與野對決의 政治 |
| III. 獨立運動의 展開와 均等思想의    |                                      |

## I. 머리말 : 西洋民主主義의 不均衡된 受容

수천년에 걸친 韓國의 政治傳統 속에 民主主義의 씨가 있고, 걸음이 있고, 재료가 있고, 뜻이 있었다는 것을 否認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民主主義의 몇가지 要素와 可能性이 있었다는 것이 近代의 理念體系와 政治制度로서의 民主主義가 存在하였다는 것을 意味할 수는 결코 없다. 우리의 政治的 傳統 속에는 民主主義에 공헌할 수 있는 要因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 보다 훨씬 많은 障礙요인이 潛在하여 왔다. 그러기에 韓國의 政治傳統과 民主主義의 關係를 過度하게 긍정적으로 論하는 것은, 특히 民主理念과 制度의 發展을 土着의 要素에 바탕을 둔 自生的 現象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상당히 無理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論議하는 韓國의 民主主義는 近代西洋民主主義를 受容, 移植, 評價하므로써 비롯된 「새로운」 또는 「近代的」 政治理念과 制度인 것이다.<sup>1)</sup> 왜 그러한 西洋民主主義를 受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부분을 受容하였는가에 대하여는 多樣的 見解가 있을 수 있으나 受容의 客觀的 事實에 대하여는 논란의 餘地가 없다. 그렇다면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는 대체로 開港以後에 展開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역사는 이제 百年이란 時點에 도달하였다. 한 世紀의 역사를 지닌 韓國의 民主主義는 아직도 民主化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없는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데 民主化에 대한 熱氣가 높다는 것이 民主主義의 性格에 대한 理解가 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民主主義에 대한 理解가 불투명하다는 것, 그리고 民主主義의 內容에 대한 合意 보다는 오히려 分裂의 證조가 뚜렷하다는데서 一世紀에 걸친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의 展開過程이 아직도 하나의 未完成의 역사임을 엿볼 수 있다.

韓國의 民主主義가 지닌 特征적 性格을 韓國近代政治史의 展開過程 속에서 더듬어 보는 것은 政治的으로나 學問的으로 必要한 作業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作業에 참여하기 위한 序說的 시도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극히 단순화된 假說을 이 글에서 제시하여 보고져 한다.

一世紀에 걸친 韓國에서의 民主主義의 展開過程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強調된 規範은 集團과 平等이며 그 結果로 個人과 自由는 相對的인 沈滯를 免치 못하였다. 따라서 韓國의 民主主義는 集團과 平等의 強調로서 그 基本 성격이 特征지워질 수 있으며 個人의 自由에 관한 문제를 심각한 취약점으로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西洋의 近代民主政治는 「個人의 發見」과 그러한 個人을 構成員으로 한 近代國家의 擡頭, 그리고 產業革命의 進展이 수반한 階級의 부각으로 그 展開過程을 說明할 수도 있다. 個人, 階級, 國家의 關係를

1) 拙稿, “아시아政治文化와 民主主義—그 受容過程의 性格,” 西江大學校東亞研究所刊, 「東亞文化」, 12輯(1987年) 參照.

어떻게 說定하며 어떠한 均衡을 創出하느냐는것이 政治工學의 핵심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處方의 差異에 따라 多樣한 이데올로기는 勿論이려니와 民主主義의 여러 갈래가 派生하게 된 것이다. 韓國近代 政治史의 展開過程 속에서는 個人, 階級, 國家에 대한 명료한 理解나 相互均衡에 대한 적절한 處方이 마련되지 못하는데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理念과 理解의 혼미 속에서 비교적 一貫性있게 強調된 것이 個人 보다는 集團이며 自由 보다는 平等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한 集團 및 平等의 強調가 바람직한 것인지 與否에 대한 評價는 쏘려 다른 문제로 이에 대한 論評은 이 글에서는 保留하기로 한다. 그러나 集團과 平等을 強調한 韓國民主主義의 性格과 추세는 西洋民主主義의 主流라고 할 수 있는 歐美의 民主理念과는 반드시 同一하지 않다는 事實은 지적하여두는 것이 마땅하다.

集團과 平等을 強調한 韓國民主主義의 특성은 어디로 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간단할 수 없으며 적어도 두개의 다른 領域에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韓國의 政治文化, 社會制度 및 權力構造의 傳統이다. 韓國의 傳統, 특히 朝鮮朝의 儒敎의 傳統 속에서는 個人과 集團, 社會와 國家 사이에 견제나 갈등은 억제되고 身分的 位階秩序의 確立으로 社會的 不平等과 政治的 不平等이 一貫性있게 正當化 및 制度化 되었다. 이러한 儒敎的 전통이 한편으로는 個人 보다 集團을 強調하는 遺産을 남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不平等에 대한 극심한 反撥을 改革이나 近代化의 基本感情으로 만들었다는 假說을 可能케 할 수 있다. 둘째는 지난 百年에 걸친 政治史의 起伏 속에서 國內外的인 狀況과 事件을 中心으로 韓國民主主義의 性格形成을 더듬어 보는 것이나. 우리는 이 글에서 이러한 두번째 領域, 즉 政治史를 中心으로 韓國民主主義의 特性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II. 開化期の 改革試圖와 國家主義의 擡頭

韓國에 있어서의 西洋 民主主義의 受容이 대체로 開港 以後에 展開된 過程이라면 그 初期的 試도는 開化期의 政治와 연관된 것이었다. 이러한 開化期의 政治史 속에서 西洋制度의 受容을 통한 改革이 점차 논의 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改革의 일환으로 立憲制度를 비롯한 民主主義의 理念과 制度가 部分的으로나마 고려되고 受容되었다. 그러나 開化初期에 當時의 執權層을 포함한 權力엘리트에 의하여 시도된 民主主義의 受容은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國運을 만회하려는 改革의 手段이며 方便이었지 民主的 規範에 대한 信念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近代政治 百年의 幕을 올린 甲申政變의 경우만 하더라도 西洋文物의 受容을 통하여 富國強兵에 어느 程度 成功한 日本의 經驗에 자극된 改革의 시도였지 民主的 規範이나 理念에 의거한 政治革命은 아니었다.<sup>2)</sup> 설사 그 改革案이 近代的 立憲制度 등을 포함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라의 富強을 꾀하는 方便이었지 個人의 權利를 認定하고 보호하려는 努力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民主主義의 受容은 國家의 必要에 부응하려는 努力이었지 「個人의 發見」에서 출발한 새로운 政治의 추구는 아니었다.

이렇듯 西洋民主主義의 基本規範에 대한 同意나 信念이 開化初期에 희박하였던 큰 理由 가운데 하나는 西洋民主主義를 지탱하고 있는 哲學이나 思想에 대한 理解가 不足하였다는 것이다. 西洋의 文物이나 制度에 대한 理解는 18세기말로 부터 비롯된 中國을 통한 西學의 導入으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西洋政治制

2) 甲申政變의 政治史의 意義에 관하여는 拙稿, “韓國民族主義를 보는 새 視覺의 摸索,” 「亞細亞研究」(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Vol. XXVII, No. 1 (1984年 1月) 參照.

도에 대한 知識은 日本을 통한 情報도 있고 하여 비교적 정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知識이나 理解는 주로 外面的인 制度를 대상으로 하였지 內面的인 思想이나 價值觀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그 當時 西洋政治 및 政治學에 대하여 가장 해박한 지식을 지녔던 사람중의 하나인 兪吉濬의 경우도 西洋政治制度를 밀받침하는 思想이나 哲學에 대한 적절한 理解를 갖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sup>3)</sup> 르네상스와 宗教改革을 통하여 이룩된 「個人的 發見」, 即「人間의 價値나 權利는 社會的 身分이나 政治的 地位의 結果가 아닌 人間이란 事實단에서 비롯된다」는 近代의 人間觀과 이를 바탕으로한 政治觀을 철저히 理解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同意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外來的 民主思想과의 접촉하고는 別途로 나라의 興盛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爲民思想은 우리의 전통 속에서 꾸준히 展開되어왔으며 實學으로부터 비롯된 經世濟民에 대한 관심은 開化 運動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國民의 힘이 나라의 기틀이라는 생각은 앞으로의 政治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大衆이 지닌 權力資源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막연한 豫感을 甲申政變의 주모자들과 같은 政治엘리트에게 안겨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엘리트의 思考의 單位는 어디까지나 國家였고 이를 構成하는 集團으로서의 國民이었지 人間으로서의, 그리고 市民으로서의 權利를 가진 個人이나 그러한 個人이 自由로히 조직한 集團은 아니었다.

甲申政變으로부터 十年後에 일어난 東學農民運動은 大衆의 權力資源이 動力化될 때 얼마나 큰 政治的 影響력을 발휘하는가를 變則의으로나마 보여 준 계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農民運動을 이끈 主役들은 어디까지나 기존제도와 그 운영실태에 대한 集團的 抵抗을 이끈다고

3) 拙稿, “近代 韓國政治學百年,”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2호(1986) 參照. 兪吉濬의 「政治學」은 「兪吉濬全書」(서울: 一潮閣, 1971), IV卷, pp. 397~767.

생각하였지 個人的 權利를 위한 투쟁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한 東學農民運動도 결국 制度的 不平等과 不正, 그리고 主體性的 危機에 시달리는 農民들의 不平과 主張을 集團의으로 表示한 것으로 初步的인 階級意識을 자아내고 平等에 대한 欲求를 具體化하는데는 기여하였으나 個人的 自由나 權利를 認識시키는데 공헌한 것은 아니다.

결국, 政治엘리트가 일으킨 甲申政變, 대중이 참여한 東學農民運動, 官僚가 추진한 甲午更張 등 開化期의 중요한 고비들은 한가지로 國家란, 그리고 막연이나마 階級이란 集團을 부각시키는 계기였지 個人的 존엄성이나 民權思想이 強調된 段階는 아니었다. 그러한 開化期의 흐름 속에서 1896년의 獨立協會의 결성과 이를 주도한 徐載弼 등의 등장은 韓國民主主義의 展開過程에서 새로운 章을 열었다.<sup>4)</sup> 첫째, 徐載弼, 尹致昊 등으로 대표되는 새 主役들은 長期間의 海外留學을 통하여 西洋民主主義의 本質에 대한 충분한 理解를 지닌 人物들이었다. 이들은 불과 몇해전에 甲申政變을 주도한 金玉均 등에 비하여 西洋政治 및 思想에 대한 훨씬 깊은 理解를 갖고 있었다. 둘째, 독립협회를 이끈 새 엘리트들은 西洋民主主義를 밀받침하는 天賦人權說이나 法治主義 등을 受容 및 紹介하였고 民主的 討論方式의 권장 및 獨善的 態度的 排擊 등 民權과 個人的 가치를 重視하는 立場을 鮮明하게 취하였다.<sup>5)</sup> 따라서, 세째, 이들은 단순히 國家的 改革의 手段으로서만 民主主義를 受容한 것이 아니고 基本的 民權의 確立을 통한 社會改革을 시도한 것이었다. 만약 독립협회,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을 통한 이들의 活動이 順調로이 계속될 수 있었다면 韓國民主主義는 集團과 個人 사이에, 그리고 平等과 自由 사이에 보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展開될 수 있었을 것이다. 後日, 個人的 自由와 思想의 多樣성을 강

4) 獨立協會의 組織과 性格에 關하여는 慎鏞廈, 「獨立協會全研究」(서울: 一潮閣, 1976) 參照.

5) 李光麟, “韓國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受容,” 「東亞研究」(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12輯(1987年) 參照.

조하고 市民倫理의 形成을 주장한 安昌浩의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이렇듯 西洋民主主義에 대한 정확한 理解와 그 基本規範에 대한 同意를 土臺로 韓國에서 民權思想과 民主制度를 발전시켜 새로운 個人과 國家의 關係設定을 시도한 徐載弼 등의 독립협회운동은 日本帝國主義의 壓力이 加重化 되면서 불과 二年만에 해산되고 政治改革의 大勢를 이끌지 못한 채 國家主義의 擡頭와 더불어 그늘에 가려버리게 되었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日帝의 침략적 기도 보다는 이로 인한 國家存亡의 危機가 대부분의 韓國 지도자와 知識人으로 하여금 民族至上 및 國家至上의 立場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目前에 나타난 日本의 위협이 제일 큰 원인이었으나 適者生存의 原則을 강조한 進化論의 流行 등도 이에 기여하였다. 그러한 國家主義의 上昇 속에서 民權의 強調, 더군다나 個人의 自由의 強調 등은 점차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例컨데 1900年代 後半의 「大韓每日新報」, 「皇城新聞」, 「西北學會月報」, 「大韓自強會月報」 등에서 民權 또는 民主主義에 대한 記事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게 되었다.<sup>7)</sup> 이러한 國家主義적 경향은 韓國民主主義의 展開過程에서 集團性을 強調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고, 특히 獨立運動期로 들어서면서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

### Ⅲ. 獨立運動의 展開와 均等思想의 高調

1910년 나라를 빼앗긴 後의 韓國政治史는 獨立運動이란 舉族的 흐름이 政治의 場을 잃은채 海外各地에 흩어져 몇갈래의 支流를 형성한 時期였다. 나라를 되찾자는 民族運動이 이미 開化期末期부터 확연하

6) 林明圭, “島山 安昌浩의 사회사상,” 愼鏞廈編, 「韓國現代社會思想」(서울: 지식산업사, 1984), pp. 87~131.

7) 李光麟, 1987, 앞의 글.

여겼던 國家主義의 傾向을 일층 強化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었다. 獨立이란 民族的 目標을 向하여 뜻을 모을 때에 個人的 利益이나 權利를 云云할 餘地는 別로 없었다. 이렇듯 民族 및 國家를 單位로 한 集團性이 압도적으로 強調되고 個人的 位置는 거의 政治的 關心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獨立運動은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 하였다. 그것은 바로 平等規範의 強調이다.

韓國獨立運動은 그 初期 부터 朝鮮朝로에 復古를 目標로 삼은 경우는 거의 없고 새로운 近代國家 創建을 指向하였다. 그것은 朝鮮朝 王國體制의 효율성에 대한 不信과 기존 봉건체제, 특히 社會的 不平等에 대한 批判이 포개져 낳은 결과였다. 獨立運動이 追求한 새 國家는 王國이 아니라 共和國이어야 된다는 데는 全般的 合意가 일찍부터 造成됐으며, 새 共和國의 主人은 國民들이며 그 國民들의 大部分이 원하는 가장 절실한 목표는 政治的 및 社會的 平等이라는 생각이 널리 전파되었다. 國民이 나라의 主人이라는 뜻에서 民主主義가 政治的 思考의 主流가 되었고, 그 國民들을 위해 平等을 實現시키는 것이 바로 民主政治의 초점이라는 立場이 널리 수증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새 民主國家建立을 위한 靑寫眞이 처음부터 뚜렷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를 위하여 1920년을 前後하여 두 갈래의 西洋이데올로기와 모델이 受容되어 獨立運動의 두 줄기를 形成하기에 이르렀다.

獨立이 가져올 새 共和國의 靑寫眞으로서는 1917년 10月 革命의 결과로 탄생한 레닌의 소련을 중심으로한 공산주의국가 모델과 自由主義國家體制를 채택한 西歐諸國 및 美國모델이 두개의 相反되는 可能性을 例示하였고 이의 受容에 따라 獨立運動도 크게 두 勢力으로 分裂되었다. 獨立運動過程에서의 左右分裂에 대하여는 다른 機會에 보다 상세하게 論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두 相異한 모델을 受容한 두 勢力이 다같이 平等規範을 強調한 反面에 個人的 權利에 대하여는 비교적 소홀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르크스主義에 입각한 공산주의국가모델을 受容한 세력이 무엇 보다도 勞働者・農民등 이른바



無産階級을 不平等의 憵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至上의 목표로 삼은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공산주의모델과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모델을 선택한 民族主義勢力도 個人의 自由보다 國民의 均等한 生活에 대하여 보다 큰 關心을 傾注하였다는데에 韓國民主義의 發展過程이 지닌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金九와 같은 지도자도 國民의 平等에 대하여는 至大한 關心을 表示한데 比하여 個人의 自由에 대하여 특별히 言及한 기록은 別로 찾아보기 어렵고, 獨立運動期의 거의 전부를 美國에서 보낸 李承晩의 경우도 弱肉强食의 原理로 움직이는 國際政治過程에서 어떻게 韓國獨立을 爭取하느냐에 專念하였지 民主國家의 기틀이 될 個人이 지닌 權利가 무엇이나에 대한 自由主義者로서의 信念같은 것을 露出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sup>8)</sup>

이렇듯 獨立을 위한 民族的 集團性과 새로운 國家의 原理로서 平等이 強調된 獨立運動期의 民主主義思潮란 大분히 民主社會主義의 색채를 짙게 띠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代表的인 例로서 趙素昂의 三均主義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여 두기로 한다. 趙素昂의 三均主義도 어디까지나 獨立이 創出할 새로운 國家像의 모색으로서 일부 공산주의자의 경우처럼 西洋思想만을 通채로 受容한 것이 아니고 韓國的 傳統思想과 東西洋의 여러 思潮를 主體的으로 선택 및 配合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러나 民主主義, 民族主義, 社會主義 등의 여러 要素가 內包된 三均主義에 있어 가장 핵심을 이루는 規範은 平等 또는 均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古代로 부터 내려온 民族的 傳統의 계승을 強調하는 경우에도 「首尾均平位 興邦保太平」이란 均等規範에 憵점을 맞춘것이라던가, 전통사회의 不平等을 除去한 東洋的 理想社會

8) 金學俊, “解放前後時期에 活動한 右派政治指導者들의 自由民主主義受容過程과 政治活動: 李承晩·申興雨·金九의 경우에 대한 하나의 素描,” 「東亞研究」(西江大學校東亞研究所), 12輯 參照.

9) 鄭鶴燮, “趙素昂의 三均主義,” 慎鏞廈 編, 「韓國現代社會思想」(서울: 지식산업사, 1984), pp. 233~272.

論을 復活시킨 康有爲의 大同思想에 큰 關心을 보인것이라던가, 民族間의 國際的 平等, 階級間的 政治的 平等, 同胞間的 經濟的 平等을 강조한 孫文의 三民主義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던가, 上海는 勿論이려니와 유럽諸國 및 소련 등지에서 열린 많은 社會黨大會에 참석하여 討論에 참여하였다는 事實 등이 한가지로 趙素昂의 平等規範에 대한 執念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이미 學界에서 활발한 研究가 진전되고 있는 三均主義의 內容에 대하여 再三 言及할 필요는 없다. 政治的 次元에서의 普通選舉制, 經濟的 次元에서의 土地國有制, 社會的 次元에서의 公費教育制 등은 한가지로 새 國家의 基本原理를 平等에 두어야 한다는 趙素昂의 立場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으며, 「고루살기」로 표현되는 그의 福祉觀도 絕對的 貧困에 못지않게 相對的 貧困의 해결을 政治的 中心課題로 보았다는 것을 反映하고 있다. 따라서 趙素昂이 三均主義를 國是로 하는 臨政의 性格에 관하여 「英國의 勞動黨보다 더 進步的인 政治抱負를 가졌음」<sup>11)</sup>을 밝힌 것은 理解가 가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해야 될 것은 그가 말하는 進步性은 주로 平等에 관한 것이지 個人의 權利 및 小數의 權利에 대한 깊은 思料를 바탕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趙素昂의 思想은 例外的인 것이 아니고 民主主義와 民族主義를 표방한 獨立運動期 韓國政治思想의 主流였다고 할 수 있다.

10) 胡春惠, “中國에서의 韓國獨立運動과 三均主義,” 三均學會學術會議(서울, 1987년 9월 4일) 발표논문.

11) 國史編纂委員會, 「資料 大韓民國史」, 第一卷(서울: 探求堂, 1970), pp. 536~38. 이것은 金容浩, 「趙素昂의 三均主義研究—그 形成·展開過程과 內容 및 評價」(서울大學校 政治學科碩士學位論文, 1979), p.132에서 再引用.

#### Ⅳ. 南北分斷과 민주主義의 시련 : 左右分布없는 與野對決의 政治

獨立運動期の 政治思想이 지닌 一般的 속성이면서 특히 平等規範을 強調한 民主社會的 思潮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特定利益이나 階層에 局限되지 않고 어떤 기존 이데올로기의 圖式에도 얽매이지 않는 汎民族的 포괄성을 지닌 政治目標의 設定이었다. 例컨데 趙素昂의 경우 그가 주장한 “新民主라 함은 民衆을 愚弄하는 「資本主義 데모크라시」도 아니면 無產者 獨裁를 표방하는 「社會主義 데모크라시」도 아닌 汎韓國國民을 單位로 한 「全民의 데모크라시」다”라고 주장하였다.<sup>12)</sup> 이러한 汎民族的 포괄성의 原則은 解放直後에 기록된 安在鴻의 立場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吾人은 이제 同一隸屬과 同一解放에서 모두 進步的이요, 反帝國主義的인 地主와 資本家와 農民과 勞動者가 한꺼번에 萬民共生的 新發足함을 要請하는 歷史的 名題下에 있음으로 萬民共同의 新民族主義오 新民主主義이다”라고 그는 주장하였다.<sup>13)</sup>

이러한 포괄적 集團單位로서의 民族의 強調은 만약 民族을 構成하는 個人과 그러한 個人들이 構成하는 小集團의 權利와 役割, 그리고 民族國家와 個人 및 國家와 小集團間의 關係에 대한 民主的 規範의 提示를 수반하였다면 균형된 民主理念發展을 위하여 더욱 多幸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政治의 場을 잃고 海外에서 鬪爭하던 獨立運動家들에게서 그러한 具體的 規範의 提示를 期待하는 것은 無理였다. 오히려 解放과 더불어 國權이 回復되고 民主政治를 創出하는 過程에서 그렇듯 균형된 民主主義의 發展을 꾀하는 것이 順理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韓國民主主義의 順調로운 發展可能性은 強大國에 의한 南

12) 金容浩, 1979, 앞의 글, pp. 81~82.

13) 鄭允在, “安在鴻의 政治思想研究,” (서울大學校 政治學科碩士論文, 1981), p. 70에서 再引用.

北分斷이란 否定的 狀況에 부딪쳐 무산히 消散되어 버렸다.

解放後 三年에 걸친 韓國政治史는 獨立運動期로부터 계승된 左右의 分裂이 冷戰의 前哨基地化한 南北分斷과 겹쳐져 左는 北에서 右는 南에서 各各 獨占的 政治體制로 制度化되어가는 過程이었다. 이러한 分裂과 分斷의 制度化는 1948년에 이르러 一段 終結을 보고 그로부터 시작된 지난 40年의 大韓民國政治史에서는 左는 없는 右만의 政治가 與野對決이라는 樣相으로 展開되었다. 따라서 建國以來의 民主主義로 향한 노력과 시도는 左右分布라는 近代政治의 一般的 모델에는 맞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與野對決 속에서 進行된 것이다.

이러한 與野對決의 政治過程에서 與는 「反共」과 「近代化」를 國家的 目標로 提示하고 이들의 達成을 위하여 總力을 기울이면서 政權의 正當性을 도출하려고 노력 하였다. 한편, 野는 「長期執權」과 「不平等」을 最大의 政治的 爭點으로 부각시키고 政權交替와 平等의 實現을 民主化의 主要內容으로 設定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 보다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與野가 各各 提示한 目標나 爭點들이, 即 「反共」·「近代化」·「長期執權」·「不平等」이 한가지로 集團을 單位로 한 主張이지 個人의 權利나 自由와 直結된 것은 아니라는 事實이다. 「反共」이 北韓 集團에 대한 우리의 集團의 安全保障의 追求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近代化」가 民族의 發展을 위한 集團的 行動目標인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集團性的 強調가 個人이나 自發的 小集團의 權利와 自由에 대한 균형된 고려를 수반하지 못한다에서 韓國民主主義實驗의 限界性이 말미암은 것이다. 「政權交替」나 「平等化」를 內容으로 한 民主化의 追求도 그것을 集團的 行動의 目標로만 強調하고 個人의 自由와 權利의 保障과 伸長이란 次元에서 소홀히 취급될 때에 豫期치 못한 副作用을 수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14)</sup>

이렇듯 民主主義의 追求에 있어 集團性和 集團을 單位로 한 行動目

14) 拙稿, “反自由主義의 民主主義와 韓國政治文化,” 서울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編, 「韓國社會의 變動과 發展」(서울: 汎文社, 1985), pp. 35~45 參照

標로서의 平等에만 置重하게 되고 個人의 權利나 自由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면 民主主義의 本質的規範은 重視하는데 比하여 節次的規範은 輕視하여 버린다는 불균형을 招來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本質的規範은 抽象的인데 比하여 節次的規範은 具體的이란 事實을 감안할 때에 그러한 불균형이 가져오는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政治發展이나 退化의 혜택이나 피해를, 그리고 기쁨이나 아픔을 경험하는 主體나 基本單位는 어디까지나 個人인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民主政治를 參與政治라고 할 때에 그 參與의 主體와 單位도 個人이며 그 個人들이 自意로 構成하는 中間集團들인 것이다. 그러한 個人의 人間性이 集團性의 불균형된 強調로 가리어진다면 그것은 民主主義의 健全한 發展에 대한 沮害要因이 되는 것이다.

參與主體로서의 個人이 人間으로서 지닌 權利와 自由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지 못한채로 만들어진 政治構造들은 個人들의 具體的 利益이나 意思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架空構造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토록 「全國民」이란 集團性을 내세운 韓國의 與野政黨이 바로 國民各個人에 次元에선 그 아무도 代表하고 있지 못하다는 架空構造化를 경험하고 있으며 韓國民主主義의 限界性을 露出하고 있다. 따라서 참된 民主化란 바로 그러한 限界性의 克服을 포함하여야 된다. 급격한 産業化와 都市化는 國民들이 지닌 個性의 多樣化를 가져왔고 그러한 多樣性을 集團의 規範으로 統制하거나 統一시킬 수 있는 單一性의 神話時代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民主化도 단순한 與野對決의 次元에서 성취되기는 어려워 졌다. 多樣한 個性과 利益의 自由로운 表出을 위하여 韓國政治는 결국 새로운 左右分布로 再構成되어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再構成은 個人을 無視한 代表性의 架空化를 克服하고 集團性에의 호소만을 일삼던 政治的 폐습을 파기하므로써만 可能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左右分布를 통한 韓國政治의 再構成은 平等과 自由의 變증법적 均衡을 둘러싼 健全한 論議의 幕을 올리게 될 것이다.